

어머니조국의 품에 안겨 21년, 꿈같은 행복의 나날이었다



기자: 비전향장기수들이 공화국의 품에 삶의 닻을 내린 때로부터 어느덧 2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뜻깊은 이날을 맞은 여러분들의 감회가 류타리라고 본다.

김동기: 정말 감회가 새롭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그 세월이 두번이나 지나지 않았지 않겠는가. 그때가 어제일처럼 느껴진다.

지금도 나의 눈앞에는 2000년 9월 2일 판문점분리선을 넘던 그때가 생생하다. 지옥행이 락원행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전장이나 역경에서 생사기로 처한 운명을 구원해준 은인에 대한 이야기가 무수하지만 우리 조국에서처럼 수십 년세월 절해고도라도 같은 사지에서 헤매이는 자기의 아들들을 함대도 잊지 않고 구원의 손길로 보살피고

끝끝내 한두사람도 아닌 60여명을 한낱한시에 맞아들인 것과 같은례를 알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모두는 21년전 조국의 품에 안기던 그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 만세!》를 소리높이 웨치고 웅성었다.

얼마나 밟고싶었던 내 조국 땅. 얼마나 안기고싶었던 조국의 품이었는데. 이런 크나큰 감격속에 어머니조국의 품에 안긴 우리들을 거리마다에 펼쳐나서 열렬히 환영해주던 인민들의 모습과 뜨거운 애정을 목격하는 지금도 잊을수 없다.

최선묵: 세월이 너무도 빨리 흘러가는것만 같다. 행복속에 세월의 흐름을 잊은것 같다.

남조선에서 감옥살이할 때에는 살아서 조국으로 돌아갈 날이 있을가 하고 생각했었는데 정말 오메에도 그리던



비전향장기수 김동기 비전향장기수 리재룡 비전향장기수 최선묵

위대한 장군님의 품, 은혜로운 조국의 품에 안기게 되었으니 꼭 꿈을 꾸는것만 같았다.

나는 고향이 남조선 강화도이지만 진정한 나의 조국은 공화국이라는 신념을 안고 그 어떤 동요나 망설임도 없이 북행길을 택하였다. 나의 이 마음을 잘 알고있기에 남조선에 있는 가족, 친척들

도 21년전 그날 판문점까지 따라나와 공화국의 품에 안기는 나를 진심으로 축복해주었다.

기자: 꿈에도 그리던 조국의 품에 안겨 보낸 지난 세월은 어떤 나날들이었는가?

김동기: 말이 나왔으니 말이 지 사회주의조국의 품에 안겨 우리들이 받아안은 뜨거운 사랑과 믿음을 새길수록 눈곱이 뜨거워지고 우리는 행복을 생각할수록 솟구치는 격정을 감할수 없다.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에게 새 삶을 안겨주시고 온 나라가 다 아는 축복받은 인생으로 빛내여주시분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입니다.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의 길을 신념과 의지로 빛내인 비전향장기수들을 모두 금방석에 앉히고싶다고, 우리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하신 그이의 크나큰 관심과 세심한 보살핌속에서 우리들은 공화국영웅으로

로, 조국통일상수상자로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비전향장기수들모두가 공화국의 품에서 여생을 행복하게 보내도록 크나큰 은정을 거두어 주셨다. 그 사랑속에 어찌할 한평도 안되는 줄이없는 먹방에서 안 우리들이 현대적인 고급살림집은 물론 계절에 따르는 옷과 생활필수품에 이르기까지 일식으로 받아안았다.

리재룡: 남쪽의 감옥에서 《눈은 총각》으로 불리우던 나도 위대한 장군님의 품에 안겨서야 새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 그이께서는 푸른 수의차림으로 피인취음을 당하던 저를 비롯한 여러명의 비전향장기수들에게 결혼식상까지 보내주시었다.

꿈같은 자식부의 기쁨을 억제할수가 없어 무릅없이 딸애의 이름을 지어주시었으면 하는 소원을 담은 저의 편지를 보아주시고 낮과 밤이 따로없이 그 바쁘신 속에서도 온 나라 인민들의 축

복속에 태어난 애기 이름을 《축복》이라고 지어주자고 친필회답까지 보내주시는 장군님의 그 사랑을 정녕 잊을수가 없다.

19살의 처녀 대학생으로 자라난 축복이는 지금 김일성종합대학에서 배운의 나래를 활짝 펼치고있다.

최선묵: 위대한 장군님의 해빛같은 사랑은 고문으로 만신창이 되었던 우리들의 몸도 회복시켜주었다. 우리들에게 유명한 개성고려인삼과 산삼을 비롯하여 수많은 사랑의 불사약도 보내주시었고 강력한 의료진을 동원하여 우리의 건강을 위한 빈틈없는 예방대책도 세워주시었다. 백두산, 금강산, 묘향산, 구월산 등 우리나라의 명산들

과 경성과 시흥호를 비롯한 경치좋은 곳에서 마음껏 휴식하도록 조치도 취해주셨다.

어제날 《인간계피품》으로 불리우던 우리들이 오늘은 로당익장하여 장수를 누려가고있다.

김동기: 비전향장기수들에게 안겨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은 오늘도 그대로 이어지고있다.

얼마전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진행된 제7차 전국로병대회에 참가하는 영광을 지니게 되었다.

그때 나는 주석단에서 경애하는 그이의 영상을 우러르면서 마치도 위대한 장군님을 비움은것만 같아져도 모르게 목청껏 만세를 불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들을 위대한 수령님 탄생 100돐 경축행사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비롯하

여 당과 국가의 대회들에 불러주시었고 사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시었다.

로 양덕은천문화휴양지에서 즐거운 휴양의 나날을 보내도록 해주셨고 해마다 갖가지 보약을 비롯한 선물을 우리모두에게 안겨주곤 하셨다.

최선묵: 세월이 흘러도 식지 않고 더욱 뜨거워만지는 절세위인들의 사랑속에서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은 진정한 삶과 행복을 누려가고있다.

그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우리들은 시와 도서도 쓰고 서예작품들도 창작하고있다.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랑을 언제나 잊지 않고 고마운 어머니조국과 민족의 통일을 위해 여생을 다 바쳐나갔다.

기자: 좋은 이야기를 들려 주어 감사하다.



해배의동포들이 어머니조국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안고 출저 출근 하는 서정시 《나의 조국》, 그 시를 창작한 시인은 나의 아버지 김상오이다.

1917년 7월 황해남도 해주에서 출생한 나의 아버지는 어려서부터 조국의 귀환을 배에 사무치게 체험하였다.

일찍이 문학의 길에 들어선 식민지청년이었다 아버지 그 가슴속에서는 때없이 조국이란 무엇인가 하는 웨침이 솟구치곤 하였다고 한다. 애끓은 시인이 바라본 조국은 빛이 없는 암흑의 세상이었다.

아버지가 그토록 찾고 있던 《조국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은 해방후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 안겨서야 비로소 찾을수 있었다.

주체34(1945)년 12월 위대한 수령님께서 5도신문주필일군협의회를 지도해주셨는데 그 자리에 당시 신문 《자유황해》 주필이었던 나의 아버지도 있었다.

솟구치는 격정을 억제할수 없었던 아버지는 그이앞으로 다가가 장군님을 만나뵈는 기념으로 장군님의 수표를 받고싶다고 말씀하셨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 아버지의 수첩에 《김일성》이라고 활달한 필체로 태양의 존함을 새겨주시었다.

그이의 출중한 인품에 완전히 매혹된 아버지는 그 격정과 기쁨을 담아 시 《광장》을 창작하였다.

아버지의 창작주제는 언제나 조국이었다.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 조국을 빼앗아려는 원수들에 대한 불타는 증오, 이 감정이 아버지의 작품들마다에 맥박쳤다. 전쟁시기에도 아버지는 시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총을 놓지 않을것이다》, 《증오의 불길

로써》, 서정시 《조국의 기발아래》를 연속 창작하였다.

전후의 재더미를 헤치며 복구건설의 기적을 창조하고 천리마의 나래를 퍼 온 세상을 날래우던 때 아버지는 시 《평양이여, 축복하노라》, 가사 《황금나무 능금나무 산에 심었소》, 가사 《청산벌에 풍년이 왔네》 등을 창작하였다.

그후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의 모해책동으로 하여 시

말로 어버이수령님의 품, 위대한 장군님의 품이로구나. 그 품 떠나 나는 못살아.

아버지의 가슴속에서 소용돌이치는 뜨거운 격정은 풍만한 서정을 불러일으키며 시적인 령감으로 분출되기 시작하였다.

서정시 《나의 조국》은 생의 활력을 주시고 청춘의 삶을 되찾아주시는 위대한 은인들께 드리는 아버지의 순결한 마음의 송가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아버지가 창작한 이 시를 몸소 읽으시고 서정시에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뜨거운 흠모의 정이 구체적인 생활감정을 통하여 뜨겁게 흘러넘치고있다고 분에 넘치는 평가를 주셨다.

아버지는 김일성상계관인이시고 조국통일상수상자이다. 통일된 조국! 아버지에게 있어서 그것은 삶의 희망이었고 문학창작의 주요주제였다. 장편소설 《통일이 언제 될 니까》, 장시 《서울이여 나는 너를 부른다》, 정론시 《남녘 땅의 청년학생들에게》, 장편소설 《교수의 증언》 등 아버지가 쓴 조국통일주제의 작품들은 100여편이나 된다. 아버지가 우리곁을 떠난지도 오랜 세월이 흘렀다.

오늘 우리 조국은 존엄높고 강대한 나라로 세계에 빛을 뿌리고있다. 조국에 대한 인민의 사랑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렬히 불타고있으며 우리의 증지는 하늘에 닿고있다.

때로 나는 이런 생각을 하여본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더라면 오늘의 조국의 모습을 보고 어떤 시를 남겼을가 하고.

알지 못해라 언제부터 나의 가슴에 깃들었는지 아마도 그것은 나의 첫 삶과 함께 이미 조용히 자리잡은것이라

언제나 나의 심장에 가득차있어 기쁨과 아픔 그 모든 운명을 함께 사는것 조국이며!

너는 무엇이기에 가만히 네 이름 부르면 가슴은 러질듯 궁지로 부풀고 눈곱은 찌릿이 젖어드는것이나

어찌하여 때로 이국의 거리를 거닐 다가가 문득 솟구치는 그리움에 마음은 한달음에 달려와 너를 안는것이나

조국은 고향마을 정든 집이라더라 동구밖 오리나무숲 그 정겨운 설레임 새벽별 들가에 피는 너인들의 웃음소리 송아지때 풀을 뜯는 언덕을 넘어 지졸대며 흐르는 어울물소리

조국은 그리운 얼굴들이라더라 다심하신 고향어머니 모래밭에 당굴던 어릴적 동무 물결치는 이랑속에 버단을 안고 맘을 씻는 처녀의 그윽한 눈길...

지난날 네 그리 가난하고 억울려 슬픔과 고통만을 줄 때에도

서정시 나의 조국 김상오

너의 운명도 내 가슴이 아팠고 살길 찾아 너를 떠나면서도 눈물속에 돌아보고 또 돌아보았거니 조국이며!

너는 무엇이기에 가만히 네 이름 부르면 가슴은 러질듯 궁지로 부풀고 눈곱은 찌릿이 젖어드는것이나

조국이며, 너는 무엇이기에 저 눈덮인 이국의 광야 비내리는 타향의 부두에 서면 두고는 네 하늘이 그리도 푸르려 앉아서 너를 떠나간이들 죽어서도 돌아오길 소원했더나

한번 너를 잃으면 네게로 돌아가는 길 그리도 멀어 피로써 눈보라 만리길을 헤쳐야 했고 죽음과 함께 불바다를 건너야 했거니

조국이며, 진정 너는 무엇이기에 너의 한치 땅을 위해 애 어린 청년들 웃으며 꽃처럼 피고 쓰러지면서도 못 잊어 두팔가득 너를 그리우고 갔더나

한줌 흙속에 너를 싸안고간 투사들도 있었더라 한떨기 진달래꽃향기에 눈감고 너의 모습 그려본 너대원도 있었더라 아마도 조국은 어머니...

그렇다, 조국은

너의 운명도 내 가슴이 아팠고 살길 찾아 너를 떠나면서도 눈물속에 돌아보고 또 돌아보았거니 조국이며!

너는 무엇이기에 가만히 네 이름 부르면 가슴은 러질듯 궁지로 부풀고 눈곱은 찌릿이 젖어드는것이나

조국이며, 너는 무엇이기에 저 눈덮인 이국의 광야 비내리는 타향의 부두에 서면 두고는 네 하늘이 그리도 푸르려 앉아서 너를 떠나간이들 죽어서도 돌아오길 소원했더나

한번 너를 잃으면 네게로 돌아가는 길 그리도 멀어 피로써 눈보라 만리길을 헤쳐야 했고 죽음과 함께 불바다를 건너야 했거니

조국이며, 진정 너는 무엇이기에 너의 한치 땅을 위해 애 어린 청년들 웃으며 꽃처럼 피고 쓰러지면서도 못 잊어 두팔가득 너를 그리우고 갔더나

한줌 흙속에 너를 싸안고간 투사들도 있었더라 한떨기 진달래꽃향기에 눈감고 너의 모습 그려본 너대원도 있었더라 아마도 조국은 어머니...

그렇다, 조국은

지혜와 힘과 뜨거운 열정을 있는 것 다 쏟아바치며 바치는것이 기쁨인 이 아름다운 삶은

가는 곳마다 들끓는 생활과 끊임없이 탄생하는 환희의 노래 강토를 굽어치는 철의 흐름우에 소용돌이치는 열풍을 안고

조국이며, 너는 세기의 하늘높이 나래쳐오르는 새찬 퍼덕임 그 아득한 높이의 빛발 찬란한 우리의 미래

그 미래를 바라보며 온갖 시름잇은 얼굴들이 로동의 기쁨안고 돌아오는 락원의 거리 무수한 배움의 창문을 비쳐드는 해살과 보육원들이 지켜선 애기들의 고요한 수줍...

그렇다, 조국은 수령님 찾아주시는 우리의 삶 수령님 안겨주시는 우리의 궁지 영원한 영원한 그이의 품 그품이여라! 조국이며 나의 조국이며 (1979년 창작)

통일선영할 조국을 그리며

련을 겪던 아버지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각별한 믿음과 은정속에 이 세상에 두번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아버지에게는 지난날 무심히 보아오던 이 땅의 푸른 하늘도 류다른 감정으로 감명깊이 안겨오고 산기슭의 푸른 잔디도, 작은 내가의 풀들마다에 맥박쳤다. 전쟁시기에도 아버지는 시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총을 놓지 않을것이다》, 《증오의 불길

김명진 (김상오의 아들)

김명진 (김상오의 아들)

김명진 (김상오의 아들)

김명진 (김상오의 아들)

김명진 (김상오의 아들)

김명진 (김상오의 아들)

김명진 (김상오의 아들)